

# LCD TV 세계시장도 “중국효과”

## 2009년 판매량 700만대 상향조정 ... 삼성전자·LG전자 수혜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2009년 LCD TV 시장은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디스플레이서치는 2009년 세계 LCD TV 판매대수 전망치를 1억2000만대에서 1억2700만대로 수정했다고 6월18일 발표했다.

전년대비 21% 증가한 규모로 세계 TV 시장의 63%를 차지하는 양이다.

2009년 LCD TV 매출 규모는 6%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 이후 LCD 패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출 감소폭 전망치가 크게 줄었다.

이처럼 세계 LCD TV 시장이 미국 발 금융위기에 시작된 불황을 비켜갈 수 있는 주된 원인으로 <중국효과>가 거론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LCD TV 수요 예상치는 농촌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사거나 기존 브라운관(CRT) TV를 LCD TV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정책이 도입되면서 1880만대에서 2천60만대로 대폭 늘어났다.

초당 240장의 영상을 구현하는 240Hz LCD TV가 본격 양산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기업이 출시한 240Hz LCD TV는 2009년 세계 LCD TV 시장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하고 2013년에는 2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의 가전하향 정책이 하반기에도 LCD TV 수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세계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TV 시장이 한층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8>